

# 양양소식

2023. 5

Vol. 336

## CONTENTS

04 기획특집

양양의 섬, 호수, 바다를 걷다

08 함께 가는 길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12 Story in 양양

양양 작은영화관



# 바다

최복숙

푸른빛 차오는 저 바다 끝에  
어릴 적 소망했던 작은 기억이

언젠가 목선을 타고 한가로이 흔들릴 때  
멀리 멀리 떠나고픈 인연의 바다

화사한 물결 밟으며  
지평선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지려  
나 오늘 소박한 연인과 바다로 가려하네



최복숙

순수문학 등단(2005)

양양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

## CONTENTS

###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양양의 섬, 호수, 바다를 걷다
- 8 함께 가는 길\_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12 Story in 양양\_ 양양 작은영화관
-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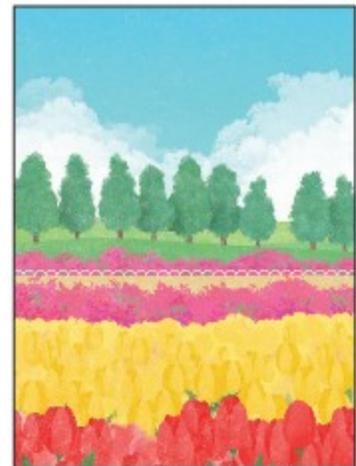
###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_ 「제273회 양양군의의회 임시회」 개최
- 18 향토사 이야기\_ 조선의 노비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 20 YANGYANG NEWS

###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건강 알리미\_ 치매예방교육 특강 및 장애인연금 안내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정보
- 28 공익광고\_ 2023 양양4계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 COVER STORY



####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 양양소식 · 336호

- | 발행일 2023년 5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 | [www.yangyang.go.kr](http://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mailto: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양양의 섬, 호수, 바다를 걷다

5월은 산책하기 좋은 달이다.

꽃샘추위도 완전히 물러난, 습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이, 어른, 어르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가볍게 산책하듯 떠날 수 있는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한다.

양양의 섬과 호수, 바다를 동네 마실 가듯 떠나보자.





섬인 듯 섬이 아닌 죽도의 산과 바다

## 죽도둘레길

#송죽 #기암괴석 #죽도암

출 발 점 : 죽도(인구)방파제 ~ 죽도해변

거 리 : 1km

소요 시간 : 20분

죽도는 둘레 1km, 높이 53m의 아담한 동산으로 옛날에는 섬이었다고 한다. 송죽이 사시사철 울창해 죽도라고 불린다. 육지와 연결되면서 지금은 육지에서 바다로 돌출된 산처럼 보인다. 이 섬의 장죽은 강인하고 전시용에 적격으로 조선시대에는 조정에 장죽을 매년 진상했다고 전해진다.

섬인 듯 섬이 아닌 듯 죽도를 한 바퀴 도는 죽도둘레길의 출발지는 죽도해변 쪽이나 죽도(인구)방파제에서 시작할 수 있다. 죽도해변 쪽보다는 주차장이 드넓은 인구항을 끼고 있는 죽도(인구)방파제에서 출발했다. 죽도를 한 바퀴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 거리는 1km 정도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방파제 쪽에서 출발하면 가장 먼저 부채바위, 신선바위를 만나게 된다. 자연과 시간이 빚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을 좀 더 멀리서 한눈에 감상하고 싶다면 뒤편 죽도정으로 향하는 계단 위로 올라가 본다. 계단을 따라 주욱 올라가면 죽도정과 죽도전망대가 나온다.

숨은 가쁘지만 애써 오르는 높이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니 후회할 일은 없다.

죽도둘레길을 걷는 동안 다양한 모양의 기암괴석들을 감상하며 걷는다. 길이 거의 끝나갈 즈음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죽도암이 나온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왼쪽으로 돌면 첫 출발지인 죽도(인구) 방파제가 나온다. 그렇게 죽도 한 바퀴를 온전히 돌아도 누구나 쉽게 둘러볼 수 있는 코스다.

Tip : 죽도둘레길이 짧아서 아쉬운 분들은 부채바위가 있는 곳에서 계단을 올라 죽도정과 죽도전망대를 둘러보자. 그리고 죽도봉을 가로질러 마을 입구인 죽도해변 방향으로 내려온다.





## 호수처럼 마음도 잔잔해지길

### 매호둘레길

#석호 #생태 #천연기념물

출 발 점 : 현남중학교 앞(매호 한 바퀴)  
거 리 : 2.6km  
소요 시간 : 45분

동해안에서도 주로 강원도에만 분포하는 독특한 천혜의 자연 자원인 석호는 해안가에 쌓인 퇴적물이 바다와 분리되면서 형성된 얇은 호수다. 양양에도 남애항 인근에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가 있다. <해동지도>, <대동여지도> 등 고지도에 지명만 조금씩 다를 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양양의 유서 깊은 '매호'다.

매호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바로 옆에 인접한 7번 국도 건설과 농경지 확충, 상부의 토사 유입 등으로 습지 원형이 훼손됐었다. 그러나 양양군이 2년간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되찾아 다시금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석호로 거듭났다.

석호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특별한 지형적 조건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매호는 천연기념물 229호인 백로와 왜가리 등 많은 새가 찾는 조류 천국이다. 동해안 바닷가의 습지에서만 자라는 멸종위기종 갯봄맞이와 가시고기의 서식처기도 하다.

현남중학교 앞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출발한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호수와 바다가 연결되는 지점에 갯봄맞이 군락지가 나온다. 호수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다시 호수로 발길을 돌리면 소나무군락지와 억새밭이 장관이다. 매호둘레길은 나무 데크와 황톳길, 야자 매트로 조성돼 있어 걸기 편하다. 중간중간 돌로 만든 징검다리도 색다른 재미를 준다. 조류 관찰대에서 희귀한 천연기념물 새들을 관찰하는 재미도 있다.

매호둘레길은 평지라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다. 많이 알려진 코스가 아니라서 호젓하게 호숫가를 거닐 수 있다. 호수와 하늘, 바다, 새와 꽃과 나무가 말없이 걸을 지키고 있어 오롯이 자연의 품에 안겨있는 것 같다. 반만년의 시간이 만들어 낸 석호인 매호둘레길을 걸으면서 마음도 호수처럼 잔잔해진다.

Tip : 해가 넘어갈 무렵 호수와 어우러지는 멋진 석양을 볼 수 있다.

매호 둘레에 심어놓은 나무가 아직은 키가 작아서 그늘이 없다.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자.

## 일출명소 바다를 걷다

### 남애항

#영화\_고래사냥 #일출 #스카이워크

출 발 점 : 남애항~남애항 스카이워크 전망대  
~남애방파제

거 리 : 1km

소요 시간 : 20분

동해안의 일출명소로 유명한 남애항은 영화 '고래사냥'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영화에 삽입된 송창식의 노래 가사 중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 배경이 양양 남애항이다. 남애항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고래 조각상이 보이는데, 바로 이 때문이다.

남애항이 '고래사냥' 촬영지였음을 알리는 기념비가 있다. 짙직한 고래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스카이워크 전망대로 올라간다.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 바다 위에 떠 있는 아찔한 기분이다.

한 계단 더 올라가면 일출명소로 유명한 만큼 사방이 탁 트여서 바다 전망이 멋지다.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유람선에 있는 듯하다. 오른쪽을 보면 남애방파제 길 따라 맨 끝에 서 있는 송이버섯 모양의 빨간 등대가 인상적이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남애방파제를 따라 빨간 등대까지 바다를 가로질러 걸어가 보자.

양양의 섬과 호수와 바다를 걷는 3가지 코스의 길은 모두 1시간 안쪽의 비교적 짧은 구간이다. 또 모두 남애항 인근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 반나절이면 다 둘러볼 수 있다. 하지만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양양을 산책하다 보면 하늘과 바다와 바람, 양양의 자연이 스며들 것이다. 느긋하게, 그렇게 힐링이 될 것이다.

(글·사진 : 편집부)



Tip : 남애항 스카이워크 전망대 왼편에 바다를 향해 난 길이 있는데 구름다리를 따라 건너가 본다. 주변에 해양지질공원처럼 다양한 기암괴석들이 즐비한데 일출 배경으로 촬영하면 인생 샷을 건질 수 있다.

##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단장  
살기 좋은 도시공동체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되찾은 봄 덕분에 양양 곳곳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시장은 북새통이고 인근 골목 구석까지 생기가 돈다. 사람들은 장날 풍경을 즐기며 두 손 가득 장을 보기도 하고, 벽화로 단장한 거리를 산책하며 사진을 찍기도 한다.

지난 4월, 양양문화재단 주관으로 양양송이공원에서 열린 '남대천 벚꽃맞이 독방마켓 축제'에는 활짝 핀 벚꽃을 감상하며 다양한 먹거리와 공예품을 즐겼다.

20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친환경 마켓 - 나눔공간'에 참여한 셀러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독방마켓에서는 양양의 지역 특색을 현대적 감각으로 살린 기념품들이 시선을 끌었다. 양양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진다.

낙후된 지역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주민들 스스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는 힘, 그 뒤에는 든든한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다.





##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과 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과는 다르다. 단순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2021년 3월에 문을 열면서 양양군의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과 관련 연계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남문리는 20년도와 21년도 총 2회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었다. 20년도에 선정된 'Level Up! 남문리 마을 계획단' 사업을 통해 '남문리 마을 연구소'를 조성해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1년도에 선정된 '인심나는 짜전곶간 나눔으로 문정성시' 사업으로 짜전 경관을 정비했다.

서문리의 '세대 공감의 서문 여는 가꿈 아지트' 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가꿈 아지트'는 8월 준공 예정이다.



###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다시 활성화

양양은 강원 영동 지역에서 가장 격렬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남문리 도시재생사업은 싸전을 중심으로 양양 3.1 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낙후된 경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양양 3.1만세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조화벽 지사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와 조형물 등으로 역사적 가치를 되살린 '조화벽 거리'를 조성했다. 남문리 주민들과 양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양양읍 일대 주요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며 마을 역사 지도를 만들었다. 이 마을 역사 지도를 바탕으로 조화벽 거리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손수건을 제작하는 등 역사자원 발굴 사업도 추진했다. 양양고 학생들과 함께 남문리 안전 지도를 제작하고, 남문3리 마을회관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거점 공간인 '남문리 마을연구소'를 개소했다.



특히, 싸전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친환경 마켓 - 나눔공간'을 기획 운영했다. 오일장과 주말 장날이 겹치는 날 중 3회에 걸쳐 먹거리, 수공예품 팀으로 구성된 양양 주민이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는 팝업형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남문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하나로 진행한 상인 키움 학교 프로그램에서 주민들은 지역 특색을 활용한 상품과 기념품도 직접 개발했다. 양양의 자연 풍경을 담은 수제비누, 비치타월, 오픈너 마그넷, 파우치 등을 만들어 양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소장할만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공연과 체험행사,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볼거리, 즐길 거리도 제공해 양양읍 원도심 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다.





### 세대를 아우르는 도시 공동체

양양군은 산과 바다, 강이 공존하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3.1만세운동 등의 향토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서핑 문화가 발달하는 등 문화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지만, 청년 귀촌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개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연령대의 인적 자원이 있다는 지역 특색을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서문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세대 공감의 서문 여는 가꿈 아지트'는 프로그램 기획에 지역 특색을 살렸다. 양양고, 양양중 등 학교가 모여 있고 고령의 주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이다. 양양고등학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수공예를 배우거나, 디지털 문해 교육을 통해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인 어르신들의 보조 강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처음에 어색하던 분위기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가까워지는 세대 공감의 현상이 될 수 있었다.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집수리 아카데미, 도시재생대학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살고 싶은 도시, 함께 사는 도시

싸전 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명소가 됐지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다. 전통시장 바로 인근이지만 건물로 막혀 있어 유동 인구가 적고 환경이 낙후돼 있던 거리였다. 그 거리에 양양 오일장과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나눔 공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주변 상인들도 있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은 상인들을 여러 번 찾아가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 나갔고, 3회에 걸친 친환경 마켓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오일장을 찾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싸전 거리를 알릴 수 있었고, 기존 주민들에게는 옛 추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자, 인근 상인들과 상생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민, 행정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양양군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오는 견학단의 방문도 늘고 있다. 올해 추진 중인 서문리 가꿈 아지트 준공 및 사업 자료집 발간,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새로운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동체 활성화 도모, 주민 주도 역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양양군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함께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양양 작은영화관 소확행, 지금 예매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너무 사소해서 눈길을 끌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에는 '소확행'이라는 의미를 만나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 같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은 어느새 우리의 고된 일상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표현이 되었다.

양양 작은영화관은 소확행의 '극장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규모는 작아도 시설 면에서 손색이 없고, 관람객의 편의와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이 느껴지는 다정한 공간이다. 직장에서 유난히 힘들었던 날이면 퇴근길에 불쑥 영화 한 편 보러 가기 좋고, 주말에 집에서 뒹굴 뒹굴하다가 편한 옷차림으로 멀리멀리 찾아가도 부담이 없고, 여행자라면 잠깐 쉬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제법 괜찮은 곳이 바로 양양 작은영화관이다. 의미 있는 시간과 특별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작은영화관으로 소확행을 예매하러 가자.

### 3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영화관



양양 작은영화관을 찾아가는 길,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전통 시장과 남대천 사이에 우뚝 자리한 양양웰컴센터가 바로 작은영화관이 등지를 튼 곳이기 때문이다.

2019년 6월에 작은영화관이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30년 만에 생기는 영화관이라며 큰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1980년대 중반에 극장이 사라지면서 양양 주민들은 최신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강릉이나 속초까지 나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필요 없이 편하게 극장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오랜 시간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느껴 온 주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순항하던 작은영화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았다.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던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 재정난과 함께 해산되면서 양양군 직영체제로 운영되다가 2021년 양양문화재단이 그 baton을 이어받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어쩌면 30년을 기다린 영화관이 그대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 양양웰컴센터 입구에 달린 '작은영화관' 간판을 보니 다행스러운 마음이 절로 들었다.

### 매력 터지는 작은영화관으로 놀러오세요!



양양웰컴센터 3층에 들어서니 비로소 극장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아늑하게 꾸민 휴게공간과 매표소, 무인 발권기, 영화 포스터 등 대도시의 영화관이 부럽지 않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내심 놀랐다. 게다가 구미를 당기는 간식이 가득한 매점까지 관람객의 편의를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엿보였다.

작은영화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가성비가 아닐까? 이곳에서는 관람료 7,000원(청소년, 경로, 군인 용사, 장애인 대상 할인가는 6,000원)에 최신 개봉작을 감상할 수 있다. 대도시의 일반 영화관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여기에 아메리카노 한 잔까지 더하면, 완벽하게 만 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양양 작은영화관은 단순한 극장의 기능을 넘어서 문화와 사람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통해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등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매월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는 등 문화 사각지대 해소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또한, 극장 공간을 활용하여 영화를 매개로 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최근에는 유럽영화제(양양군·양양문화재단·(유)더스탠드온하조베이 공동 개최)의 상영관으로서 스웨덴·벨기에·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외 작품들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작은영화관이라고 해서 단조로운 시골 극장 분위기를 생각했다면 큰 오산! 이곳은 그야말로 예측불허 즐거움이 팡팡 터지는 문화복합공간이다.





##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보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감상해 볼 차례다. 티켓은 영화관 매표소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 (<https://yangyang.scinema.kr/>)를 통해서 미리 예매할 수 있다. 아니면 현장에 비치된 무인 발권기로 편하고 빠르게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티켓 구매 후 상영시간에 맞춰 4층 상영관으로 올라간다. 상영관은 1관과 2관으로 나뉘는데, 장애인석을 포함해서 1관은 57석, 2관은 37석을 보유하고 있다. 좌석은 하나같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영상이나 사운드 역시 멀티플렉스 극장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좋을 만큼 최상의 컨디션이다.

극장의 수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관객의 품격이 아닐까? 양양 작은영화관에서는 연중 캠페인으로 '나일수록 색다르게'라는 주제로 영화관람 등급 확인하는 법, 영화관 에티켓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올바른 관람문화를 제대로 숙지해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관객들까지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관객의 매너는 극장의 격을 결정한다.

좌석에 앉아 휴대폰 벨소리를 '무음'으로 바꾸고 영화가 시작되길 기다린다. 상영관이 점점 어두워지고, 스크린 위로 빛이 쏟아진다. 이곳이 양양의 어느 극장이라는 것도 잊은 채, 나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도 잊은 채, 영화 속으로 근사한 여정을 떠난다. 나의 소화행, 개봉박두!

〈글·사진 : 권윤희〉

**나일수록 색다르게 나이마다 색다른 영화**

즐거워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에티켓 안내

영화관람 전 등급을 확인하세요

- 1** 영화관람 전 등급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ALL 12 15 18**

모든 연령 누구나 관람할 수 있어요
- 2** 휴대폰 벨소리는 '무음'으로 바꿔 주세요.

**12**

만 12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어요
- 3** 앞 좌석을 발로 차거나 의자에 다리를 올리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15**

만 15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어요
- 4** 영음채 집중할 수 있도록 말사광과의 대화는 자제해 주세요.

**18**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어요

양양문화재단

### \*무인발권기 이용 Tip\*

- 1**

첫 화면에서 [티켓구매] 클릭
- 2**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영화 또는 [전체 상영시간표보기]
- 3**

[원하는 영화 선택]  
↓  
[관람 인원 선택]
- 4**

[관람할 좌석 선택]  
[관람 정보 확인] 클릭  
[결제하기]

##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양양군 농촌지도소 (1970년대 추정)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2023년)



# 의정소식



## 「 제273회 양양군의회의 임시회 」 개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운영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양양군의회의(의장 오세만)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 「제273회 양양군의회의 임시회」를 운영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주요 일정을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수, 간사 최선남)에서는 당초예산 4,347억원 대비 497원 증액된 4,844억원으로 편성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재정수요가 없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4월 28일, 5월 1일 이틀간 진행되는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의 현장점검은 양양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작으로 총 12곳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육아통합지원센터 사업장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공공신후조리원 등이 밀집한 통합 보육서비스 거점 기관으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 등을 미리 진단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4월 3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종석 양양군의회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윤여경(전 공무원)씨와 이성섭(전 공무원)씨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총 20일간 양양군의 2022년도 세입·세출,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결산자료를 분석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에 제출한다.

오세만 의장은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올해도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양양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양양군 보훈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4월 4일 의장실에서 양양군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오세만 의장과 김수남 보훈단체협의회장 및 6개 보훈단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유공자들의 활동사항 및 애로 사항 등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세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라며 “보훈대상자들의 권리 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조선의 노비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와 고귀한 존재가치를 지닌다. 이름에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거나 축복의 의미가 담겨 삶의 목적을 드러낸다. 그러나 주인과 사회의 경멸적인 시선, 시대의 아픔,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름도 있다. 조선 시대 노비들의 이름이다. 계급 사회였던 조선의 신분 제도에서 최하층인 노비의 이름만 보더라도 노비의 주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노비의 이름은 노비주인이나 부모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처음에는 한글 이름으로 쉽게 부르다가 분재기(分財記: 재산의 주인이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여 준 문서), 매매 문기(文記)나 호적 자료 등에 등재되면서 한자를 차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양양의 낙산사에 성종이 1470년에 내린 2건의 교지가 있다. 4월의 교지는 잡요(雜徭)와 염분(鹽盆: 소금을 만드는 솥)의 세(稅)를 면제한다는 내용이고 6월의 교지는 낙산사에 노비 20명을 하사한 사패(賜牌: 국왕이 노비나 토전을 하사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성종이 선왕 예종의 원찰(願刹: 왕, 왕후와 같은 왕족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들의 안녕을 비는 사찰)인 낙산사를 보호하고 예종의 명복을 빌 목적으로 발급한 것이다.



▲ 1470년 6월 성종임금이 낙산사에 내린 교지

이번 호에서는 1470년 6월에 내린 성종의 교지에 기록된 노비들의 이름을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教旨(교지)

江原道襄陽接司瞻寺婢訥斤矣三 所生奴性仇之年三十九 同寺婢四夫矣三 所生婢於乙吾里年三十二 同寺婢四季矣五 所生奴亡乃年二十七 同寺婢四夫矣五 所生奴海青年二十四 同寺婢都里加伊矣三 所生奴亡吾赤年二十八 同寺婢都里加伊矣四 所生婢苒叱夫年十七 軍器寺婢毛老非矣三 所生奴原山年二十四 同寺婢德加矣四 所生奴寶中年三十 同寺婢銀花矣二 所生婢玉伊年二十二, 同寺婢銀花矣三 所生奴玉孫年十七, 同寺婢德加矣八 所生婢卜加年十六 同寺婢孝道矣〇 所生奴安金年二十, 同寺婢義昆矣三 所生婢內隱伊年二十四 司宰監婢卜德矣二 所生奴林大年三十, 同監婢卜德矣四 所生婢小非年二十五, 江陵司宰監奴多情矣一 所生奴金孫年二十七 同監奴多老矣一 所生婢田非年二十三, 濟用監婢其邑加矣一 所生婢芟非年十五, 同監奴毛知金年三十九, 同監婢卜今矣二 所生婢者斤年 年三十九, 等乙洛山寺亦中賜給 俾供香火之需爲臥乎 可傳永世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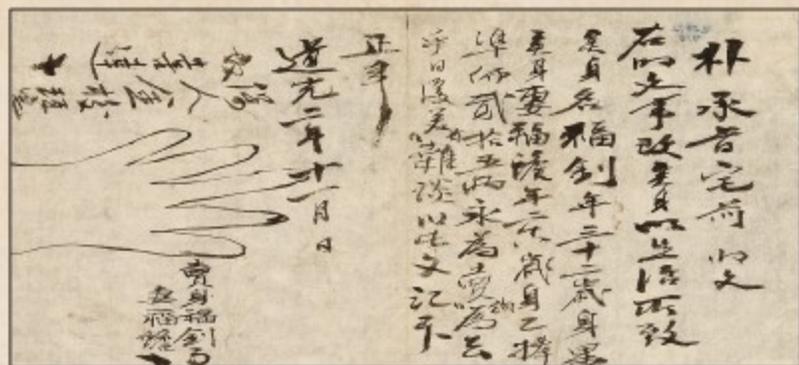
成化六年六月初二日敬奉 教旨  
右副承旨通政大夫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臣李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지의 원문에 노비의 이름은 붉은색으로 처리함.

노비의 이름은 양반이나 양인의 이름에는 쓰지 않는 글자를 사용하였다. 노비의 이름에는 목적의식이 없었다. 낙산사에 하사된 노비의 이름 또한 亡(망하다), 老(늙다), 石(돌), 叱(어긋다), 訥(어눌하다), 仇(원수) 등의 나쁜 뜻을 담고 있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지배층의 우월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정(多情), 은화(銀花) 등의 이름은 계집종에게 붙여진 비교적 좋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작은년(者斤年), 찜덕(卜德), 찜가(卜加), 찜금(卜今), 늙은이(訥斤) 등의 외모나 서열에 따라 붙인 이름도 있지만 툼비(芟非), 얼러리(於乙吾里) 같은 더럽거나 놀림을 나타내는 이름도 있다. 이 교지에 나오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노비에게 붙인 이름으로 강아지(姜阿只), 도야지(都也之), 두꺼비(斗去非, 蟾伊), 술개(召叱介), 꼬간이(足間伊), 꺾쇠(錫金), 돌쇠(芟金), 쇠돌무치(金芟無治), 마당쇠(麻堂金), 망나니(亡難, 莫亂), 모지리(毛之里), 개똥(介同, 犬屎), 분녀(糞女), 방귀(方貴), 똥산(屎山), 말똥(馬叱同) 심지어 악독한 귀신이라는 뜻의 야차(夜叉), 석을년(石乙年), 말종(婁宗), 시체(尸體) 등 듣기에도 민망한 이름도 있다.

노비는 남성인 노(奴)와 여성인 비(婢)의 합성어인데 종이라고도 불렀다. 개인의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 되어 상속, 매매, 증여의 대상이 되었고 성은 없고 이름만 있었다. 교지 본문의 “洛山寺亦中賜給(낙산사에 알맞게 공급하니)”은 노비 20명이 사람이 아닌 재산 또는 물자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노비가격은 대개 말 1필의 가격에 해당한다. 조선 시대 노비의 수에 대해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인구 대비 최소 30% 최대 60%까지로 추산되고 있어 15세기 후반의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노비’라고 했다고 한다. 현재를 사는 대부분의 우리는 본인의 가문이 양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 순조 22년(1822)에 작성된 박승지택 노비문서 (출처: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시대의 노비처럼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현재는 없을까? 불리는 이름으로 인해 아파하고 가슴을 부여잡는 사람은 없을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 개방형 직위 보건소장 신규 임용

#### 양양군 개방형 직위 보건소장 신규 임용

4월 3일 신규 임용된 신임 신승주 보건소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산부인과 전문)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유전학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국내 최대 여성종합병원인 차병원과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삼십여 년간 산부인과 전문의와 교수로 근무해왔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분만취약지인 양양군에서 신임 보건소장의 이같은 경력은 여성 질환 예방 관리와 출산장려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품종 딸기 육종가와 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 신품종 딸기 육종가와 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군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기반한 신품종 딸기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월 14일 업무협약을 통하여 양양군은 딸기 육종가에 의해 품종보호 출원된 신품종 딸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신소득 전략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품종은 '사이투'라는 분홍색 딸기로서 2022년 육종가에 의해 출원되어 현재 품종보호 심사 중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롭게 조성된 테스트베드에서 이 품종에 대한 재배 실증시험을 마쳤다.



###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양양군이 5월 12일까지 복지에 소외된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발굴 대상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되며, 중점 발굴대상은 ▲ 권리구제 대상자 ▲ 건보료 및 지방세 체납 등 위기가구이고, 선제적으로 ▲ 부업권 금융연체 발생 가구 ▲ 거주형태 변화 가구 ▲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취약계층까지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된다.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 이용해보세요!**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 이용해보세요!**

'일단시켜'를 이용하면 가맹점에서는 수수료로 부담이 없고, 소비자는 마케팅 할인쿠폰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주문할 수도 있다. 양양군은 지난해 1월부터 일단시커 앱서비스를 시행, 현재 가맹점 수는 103개소, 앱에 노출된 업소 수는 60여개소이다.

주요 관광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 축제 및 전통시장 캠페인 시 홍보 관촉물을 배부하며, 매 주 금요일 할인쿠폰(5,000원) 40장을 발행하고 축제 행사 시 테마쿠폰을 발행하여 소비자 유입과 가맹점의 매출 상승을 도모할 예정이다.



**산림자원 조성 위해  
17만본 조림사업 추진**

**산림자원 조성 위해  
17만본 조림사업 추진**

군은 6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해방지 및 경제림 조립을 위해 산불피해지 및 벌채지 등을 중심으로 총 76ha 면적에 소나무, 자작나무 등 174,500본을 조립한다.

또한, 4,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산림경영 계획에 따라 시행한 벌채지에 대하여 4월~11월까지 손양면 주리 등 사유림 10ha에 대하여 소나무 용기묘 25,000본을 식재하는 경제림 조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보안등  
75곳에 신규설치**

**농어촌 보안등 75곳에 신규 설치**

양양군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들여 읍면 농어촌 지역 75곳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한다. 보안등 설치하는 농어촌 지역의 각종 사고·범죄를 예방하고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읍면별로 보안등 설치 수요조사를 한 결과 84곳이 접수, 이중 적합성 조사를 거쳐 75곳(읍면별 12~13개소)이 최종 선정되었다. 지난 3월 27일 보안등 설치 공사에 착수하였고, 5월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양양교육도서관

## 사서추천도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50 양양교육도서관  
Tel : 033-672-2679 FAX : 033-672-2689  
<https://lib.gwe.go.kr/yylib>



### 여우 목도리

저자 : 유지우 지음

발행처 : 봄별 / 발행년 : 2023 / 청구 : 아 813.8-유780=2 / 자료위치 : [양양]이변달 전시도서  
여우 목도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사냥꾼들이 여우를 잡으려고 혈안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눈발에 혼자 떨고 있는 아기 여우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사람들이 여우를 잡고 또 잡아 여우가 점점 사라져 갈 때쯤, 그제야 사람들은 여우 목도리를 하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여우 목도리를 하고 다니지 않게 되어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여자아이는 여우를 데리고 숲으로 갑니다. 숲에 여우를 놓아 주려던 순간 어디선가 부스럭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아리와 여우 앞에 나타난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  
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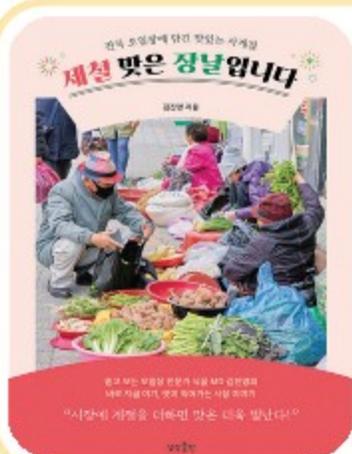


### 10대를 위한 심리학을 빛낸 결정적 질문

저자 : 이남석 지음

발행처 : 다른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180-이192스 / 자료위치 : [양양]이변달 전시도서  
최근 MBTI의 대유행 현상에서 알 수 있듯, 사람들은 늘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궁금해한다. 심리학은 바로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태어난 학문이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을 해결하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는 학문으로 떠오른 심리학은 심리 분석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제는 인공지능 개발에도 활용될 정도로 최신 과학까지 이끌고 있다.  
《10대를 위한 심리학을 빛낸 결정적 질문》은 심리학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이 되었던 7가지 핵심 질문을 뽑아 심리학자들의 놀라운 탐구 성과를 들여다본다. 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청  
소  
년



### 제철 맛은 장날입니다

저자 : 김진영 지음

발행처 : 상상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981.102-김78스 / 자료위치 : [양양]이변달 전시도서  
전국의 산지와 제철 식재료를 찾아 떠난 지 어느새 28년. 사계절 따라 맛이 드는 식재료를 소개하고자 찾아다니던 장터 역시 100군데를 넘겼다. 저자의 여정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재료나 맛집은 없다. 이는 유명세에 가려져 있지만 그 계절에 가장 맛있는 먹거리를 소개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이다.  
『제철 맛은 장날입니다』는 먹거리에 담긴 맛과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의 가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 또한 제시해 준다. 국내의 식도락여행객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일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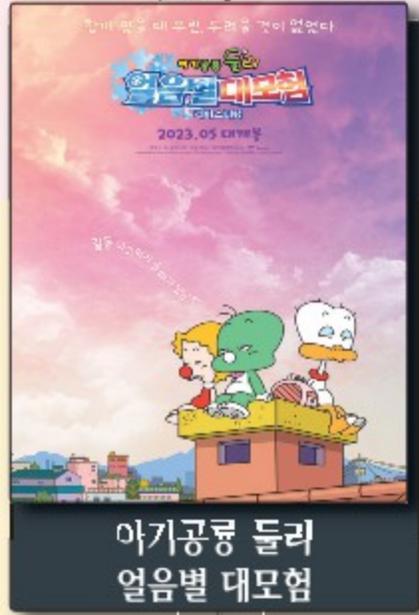
양양  
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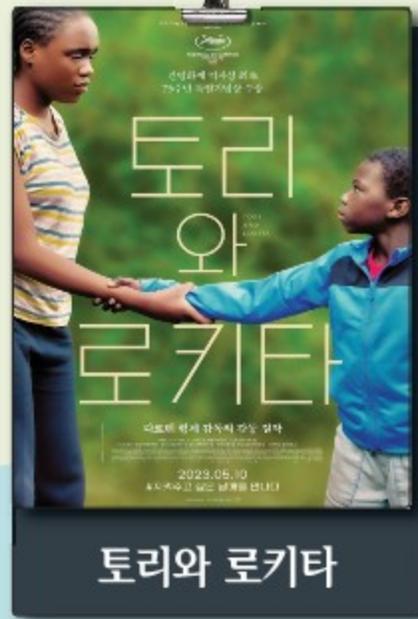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인어공주



도리와 로키타



양양유럽영화제(YEFF)  
포스터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 양양소식지 일자리정보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양양수산	1명	식품가공 품질관리원 (HACCP업무)	08:00 ~ 17:00 (주5일)	월230만원이상 (협의)
비엔에이치	1명	음료제조 및 판매원	시간협의	시급1만원
(주)소노인터내셔널 양양지점(솔비치)	5명	수상안전요원	08:30 ~ 17:30 (주5일)	연2,840만원이상 (협의)
	5명	식음업장 출서빙원	08:30 ~ 17:30 (주5일)	연2,413만원이상 (협의)
양양군민약국	1명	전산자료입력원	시간협의 (주6일)	월205만원
(주)재성정보통신	1명	총무사무원	08:30 ~ 18:00 (주5일)	월220만원
	1명	통신장비설치,수리원 (1종보통면허소지자)	08:30 ~ 18:00 (주5일)	월220만원
주식회사 은진 (브리드호텔)	1명	룸메이드	09:00 ~ 18:00 (주5일)	월240만원
	1명	하우스맨	교대근무	월275만원이상
더조은요양원	1명	요양보호사	교대근무	월210만원이상 (협의)
(주)에이티에스 (양양국제공항)	5명	지상조업	스케줄근무	월215만원
(주)남양인더스트리	1명	용접보조원	08:00 ~ 17:30 (주5일)	월230만원이상 (협의)
KAC공항서비스(주) (양양국제공항)	1명	기계시설 유지보수원	1일 8시간 (주5일)	월222만원이상 (협의)
	2명	조류퇴치종사원 (수렵면허소지자우대)	1일 8시간 (주5일)	월222만원이상 (협의)
(주)테라에너지	2명	산림경영인 (산림산업기사자격필)	08:00 ~ 17:00 (주5일)	월350만원이상 (협의)
(주)골든에스앤씨 (설해원)	3명	프론트/예약실 사무 원	1일 8시간 순환근무	월247만원 이상 (협의)
	5명	객실청소원	08:30 ~ 17:30 (주5일)	월237만원 이상 (협의)
	5명	현관/락카관리원	1일 8시간 순환근무	월245만원 이상 (협의)
	5명	출서빙원	1일 8시간 (주5일)	월245만원 이상 (협의)

##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사고·모건의 발생이 쉽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상 송달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표지(가) 표시된 정문 앞 도로가  
바로 교차로의 건너 길 건너 구간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상지표지(가)표지(가))

###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표시된 소화전/소화수상 물이  
소화전 5m 이내 정차 금지

### 고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표시된/노숙숙사가 표시된  
고차로 모퉁이(가) 도로의 모퉁이에 정차 금지

### 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시판 쪽은 노숙숙사인 기준 10m 이내  
정차 금지

### 횡단보도

횡단보도 표시판 앞을 횡단할 정지 금지

신규민원 소관 : 신고민원 : 스텝으로 행정안전부 연선(민원)  
 : 관내도 부대 : 요건 구비 시 현상송달 없이 과태료 부과 가능

▶ 본 연선에 해당이 없는 민원도 행정안전부 연선(민원)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연선(민원)이 아니라도  
 ▶ 민원도 부대 신고는 민원시 신고 시 연선(민원)이 아니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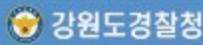


행정안전부

##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시 안전수칙

1. 안전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 하기  
☑ 위반시 벌칙금 2만원
2. 면허 필수!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기  
☑ 위반시 벌칙금 10만원(골크기21년),  
13세미만일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3. 동승자 탑승 등 2인 이상은 함께 타지 않기  
☑ 위반시 벌칙금 4만원
4.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하기  
☑ 위반시 벌칙금 3만원
5. 야간 밤길에는 등화장치 꼭 작동하기  
☑ 위반시 벌칙금 1만원
6. 음주 후에는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기  
☑ 위반시 벌칙금 10만원(면허취소, 징치)
7.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 도로교통법 미준수 시에는 벌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경찰 활동 우수사례

안전한 양양군 만들기 캠페인



속초경찰서

### 직접 찍은 경찰영상을 보내주세요

- ▶ 교통정리, 범인گیری 등 경찰의 다양한 활동을 보내주세요.
- ▶ 편지, 사진, 동영상 등 어떠한 방법도 상관 없습니다.
- ▶ 보내주시는 분들 중 선정을 통해 소정의 부상품을 드립니다.
- ▶ 여러분의 관심이 안전한 양양군을 만듭니다.





▶ 보내주실 곳  
sokchopol@police.go.kr  
033-634-0321  
속초시 도리원길 93 속초경찰서

## 이런 경우 100% 보이시피싱

경찰청

- ①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나요?
- ② 은행으로부터 자금리 대출, 정부지원금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받았나요?
- ③ '엄마(아빠) 나 폰 고장났어 이 번호로 문자 줘'라는 메시지를 받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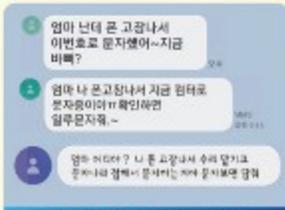
→ 카카오톡으로 보안프로그램, 대출신청서를 받았나요?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절대!**  
신분증, 채무·구속영장을 보내지 않아요!  
프로필에 김철이라고 표시하지도 않아요!



**은행은 카카오톡으로 절대!**  
정부지원금·자금리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요!  
은행은 무작위 대출신청자를 보내지도 않아요!



**엄마 나 폰 고장났어 이 번호로 문자 줘**  
이번호로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이번호로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이번호로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로**  
계좌정보·신분증·상환권 번호를 요구한다면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지속은행 신청서.zip**  
https://banktimes.com/info/8941604591256/230348/PAAsZ1ag09f4dJX3a8B06shf3034esCfE...990348f7985329019a08891

**zip·apk·링크 등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악성앱이 설치되면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고 모든 거래 대용전화가 범죄조직에 연결돼요!

보이스피싱 신고전화    범죄신고 112    금융감독원 1332    민원상담 182



**진드기!!! 물리면 안돼**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갓취입고! 기피제 뿌리고!**



모자, 긴팔, 드시, 수건, 기피제, 알차마, 장갑, 끈테지, 목이 긴 양말, 장화



**진드기!!! 물리면 안돼**



아외활동 후에는  
**씻고!! 빨래하고!!**

## 2023년 한남초에서는~

**전교생 저녁돌봄교실 운영(오후5시~7시)**  
 ☆저녁식사 제공  
 ☺ 1~2학년 학기용 방과후 돌봄교실 100% 지원,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전교생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운영**  
 ☺ 1~2학년 놀이로 익히는 재미있는 생활 영어 교육  
 ☺ 3~6학년 피닉스 및 DET 활동 원서읽기, 의사소통 중심의 원어민과 전문교사 반터칭 수업

**2~6학년 윈드오케스트라 운영 (당동시립관현악단 소속 우수 갈라진)**  
 ☺ 1인 2악기 목관기 트럼펫, 트롬본, 류타, 호른, 첼로, 오보에, 바순, 플루티넷, 색소폰, 합창, 마림바, 워드라프, 자유편

**2~6학년 말찬 방과후프로그램 운영(100% 무상지원)**  
 ☺ 미술, 만화일러스트, 기타 및 밴드, 미술 및 공예, 학구, 스포츠

**전교생 한남돌 가족캠핑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연도 대역)

**전교생 현장체험학습(100%지원) 운영**  
 ☺ 천고랜드, 워터파크, 랜드비온, 직산물 각종 체험학습

**전입생을 환영합니다.\*\***

☎ 문의 교무실 033)670-9900



★양양도시신문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기록하세요♡



양양10경, 관광지, 시설, 행사, 시장, 여행, 문화체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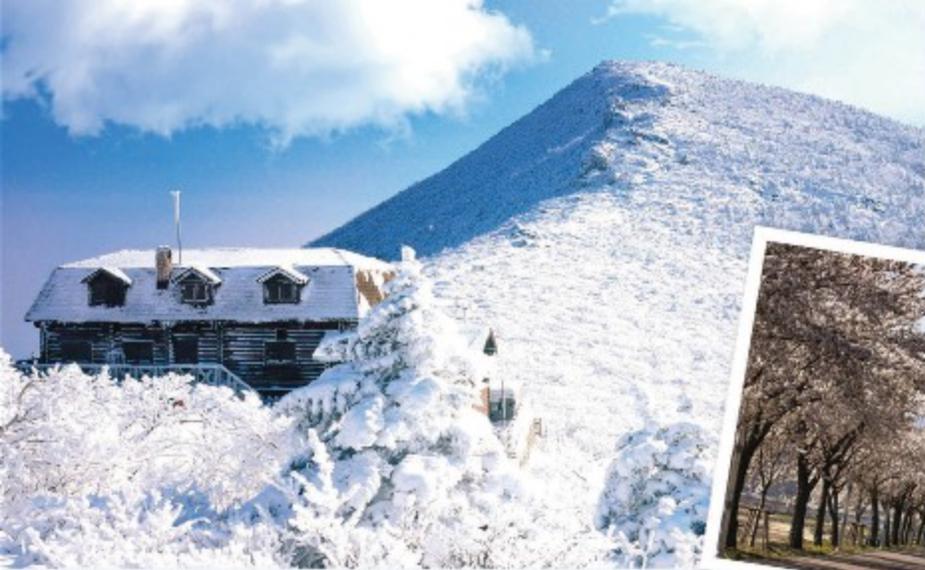
양양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을  
 사진 또는 글로 남겨주세요

“ 채택된 사진과 글은 양양도시신문 독자에게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양양군 공식 SNS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

취민의방방방

이메일 : tashidele90@koreakr  
 (사진제공 및 콘텐츠 운영, 생략 주소, 연락처 기피)





# 사계절 느끼며 보고 싶은 2023 양양4계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응모자격 : 2021년 1월부터 ~ 2023년 사진,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 **작품내용 : 양양군의 10경**

- 1)남대천 2)대청봉 3)오색령 4)오색주전골
- 5)하조대 6)죽도정 7)남애항 8)낙산사 의상대
- 9)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10)서평

\*축제의 주제를 잘 표현한 작품, 양양군의 농·어촌 생활상

■ **작품규격 : A 일반사진 - 11x14인치 컬러사진  
B 스마트폰 사진 - 8x10인치 컬러사진**

\*드론촬영과 동일인이 A와 B스마트폰 두 분야에 출품은 접수불가

■ **출품료 : 없음**

■ **출품수 : 1인 4점 이내(A, B공통)**

■ **접수처 : 양양예총(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540) 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  
(M. 010-6371-3459)**

■ **접수기간 : 2023. 8. 21(월) ~ 9. 15(금) 소인 유효**

■ **작품심사 :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 **심사발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전결과발표게시,  
양양군문화재단 게시판**

■ **시상일시 : 10월 양양송이축제 개막식  
(수상자에게 개별통보)예정**

■ **시상내역-(작품구입비)**

구분	A, 일반사진 부분	B, 스마트폰 부분
합계	27점	14점
금상	1	500만원
은상	1	100만원
동상	2	80만원
장려상	3	50만원
입선	20	20만원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상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전달합니다.

■ **기타사항**

1. 작품수상자발표 후 수상자는 원본파일 3,000픽셀 5 MB이상이며, 스마트폰은 용량 3MB 이상 이메일(yycf@yycf.or.kr)로 제출해야 함
2. 입선 이상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로 인정함 (스마트폰 작품은 제외)
3. 입상·입선작의 저작물 사용권은 주최측에 있으며 출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동일작품, 유사작품, 합성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입선되었을 경우 상권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유보(촬영일자 변경 또는 수정 불가)
5. 작품에 나오는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6. 입상·입선작품은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시상금은 원천세 및 금융수수료 공제 후 지급함
7. 낙선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뒷면 접수증 사용바랍니다)
8. 출품표는 양양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